



정교회주보

제2573호

2026년 4월 19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사도 바울로가 건지 못하던 이를 치유한 루스트라(오늘날 튀르키예 코니아)에서 발굴된 초기 교회 유적

부활 후 제2주일

(토마 주일)

성 바프누티오스 순교자

(조과 복음 1)

- '찬양되시는 주여...' 생략
- '대영광송' 다음에 '토마주일 찬양송'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토마주일 찬양송 ... " " 74
- 부활 시기송 " " 39
- 사도경 : 사도행전 5,12~20 ... 250
- 복음경 : 요한 20,19~31 97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15회] 루스트라: 치유와 오해

이 고니온을 떠나 루스트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로와 바르나바는 나면서부터 걸지 못하던 이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였다.(사도행전 14,10) 이 치유는 사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이 인간의 믿음과 만난 신비로운 협력의 열매였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군중은 현상에 사로잡혀 사도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부르며 신격화하려고 했다. 이는 하느님의 영광을 인간의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유혹의 순간이었다.

사도들은 즉시 옷을 찢으며 자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증언하였다.(사도행전 14,15) 그들의 진정한 권위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비롯되었다. 사도들은 기적의 영광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헛된 우상에서 살아 계신 창조주 하느님께로 돌렸다. 그들에게 기적은 선교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표였다. 사도들의 이러한 태도는 신앙의 본질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인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데 있음을 일깨워 준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2026년 부활절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가 정교회의 가장 큰 축제, 곧 “축일 중의 축일이며 축제 중의 축제”인 빛나는 거룩한 부활절(파스카)을 경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은 참으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대하고 기쁨이 충만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편의 말씀, “이 날은 주님께서 내신 날, 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는 구절로 우리를 큰 기쁨과 잔치로 이끌며, 다음과 같이 찬양하도록 초대합니다.

“환희의 파스카, 주님의 파스카,
지극히 존귀한 파스카가 밝아 왔도다.
우리가 기쁨에 넘쳐 서로 얼싸안은 파스카
슬픔을 물리치는 파스카
오늘 그리스도가 신방에서 나오시듯이
빛 속에 싸여 무덤에서 나오셔서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라 하시니
여인들이 기쁨에 충만되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진정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참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이 큰 축일은 해마다 찾아오고 또 지나가지만, 천상의 부활절, 곧 천국에 합당한 이들이 그곳에서 누리게 될 부활절은 영원하며 끝없는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거룩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활절, 곧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된 신자의 마음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부활절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사모할 만하며 더 큰 기쁨을 줍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활절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언제나 선을 행하며 덕을 쌓는 사람은 영혼 안에서 날마다 부활절을 누리며 그 부활절을 영원히 기념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이 영원한 부활절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욕과 맞서 싸우는 매일의 영적 투쟁, 곧 덕의 밭에서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곧, 자비와 자선, 용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성찬의 신비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쁨에 차서 다음과 같은 한 시인의 말을 되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네,
내 마음의 갈망이 크도대!
오늘 나는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네,
다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이번 축일의 기회를 잘 활용합시다.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허락받은 동안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서 하늘 나라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영원한 선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어, 그들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미움과 악이 아니라 사랑과 선을 위해 일해야 함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성직자들과 모든 협력자를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한없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의 대주교이자 일본의 엑사르호스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면”

콘스탄티노스 사카리디스 대신부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면”(시편 68,1)
다윗은 이와 같은 말로 주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주님을 헌신적으로 믿는 자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들 흠어지고 맞서던 자들 그 앞에서 달아나니.” 이 승리의 구절이 우리 영혼을 기쁨과 환희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성가에 이 구절을 삽입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가에 이 구절을 승리의 서곡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에게 어느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사악한 악마들조차도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악마의 손아귀에서 돌아나던 불쌍한 사람들은 앞으로 당할 무서운 심판에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군인들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으며 그들의 머릿속은 혼돈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추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온갖 엉뚱한 얘기를 꾸며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터졌으며 그들을 흠어지게 했으며 지상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범죄가 발생했던 예루살렘에

는 “저 들들의 어느 하나도 제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마태오24,2) 그리스도의 적들은 모두 흠어졌으며 그들의 최후는 지극히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원수들에게는 불행이고 멸망이지만 그를 믿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면 …… 착한 사람들은 즐겁고 흥겨워 하느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리라”(시편 68,3)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고, 부드러운 음성을 두 귀로 들었을 때 향료를 가져간 여인들과 제자들은 큰 기쁨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그들은 “너희의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요한 16,20)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부활을 맞본 사람들은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해도 “늘 기뻐하며”(II고린토 6,10)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언제나 그들을 동행할 것이며, 그들은 모든 사물 위에서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면 …… 착한 사람들은 뛰놀며 기뻐하리라”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메아리'(정교회출판사)에서 발췌

주간 예배 안내

- * 4월 23일(목)
성 게오르기오스 대순교자
- * 4월 25일(토)
성 마르코 복음사도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용미리 성당 예배

축일을 맞은 용미리 구세주 부활 성당에서는 오늘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교회 묘지에 잠든 모든 고인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 서울 성당 음향 시스템 교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음향 시스템이 노후화와 여러 문제로 인해 더 나은 시스템으로 새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재정적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1005-101-635905
(한국정교회성니콜라스대성당)

알림

■ 부활절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 대 주간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절을 위해 성가와 봉독, 달걀 준비, 에피타피온 꽃 장식, 음식 마련, 성당 청소 등 여러 자리에서 정성껏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배 및 행사 전후 준비에 큰 도움을 주고, OKN 콘텐츠 제작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준 신데즈모스 청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 성당에서는 부활 주일 사랑의 오찬 이후, 사물놀이 공연과 에티오피아 공동체의 음악 공연이 이어져 기쁨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장신대 학생들 서울 성당 방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거행된 성 대 토요일(11일) 아침 성찬예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원모 교수와 다수의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성의 샘터



당신의 자비로 도와주소서!

언젠가 심한 유혹들이 아르세니오스 성인을 찾아와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 수도자들이 우연히 성인이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나의 하느님, 합당치 못한 제가 간구하오니 저를 이 슬픔 속에 버려두지 마소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한한 자비가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